

■ 법률 칼럼

최근 이민 소식

1. 2022년 4월 이민 문호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4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편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 (I-140)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L 및 E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증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잘 알려진대로 대로주재원(L)이나 E/E-2 포함비자 배우자는 노동허가증(EAD)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노동허가증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허가증의 발급이 지연되면서 과거부터 일을 해 오던 직장에서 노동허가증 연장을 받지 못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속출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은 2022년 1월 31일 이후부터 주재원의 배우자(L-2) 또는 E-2 배우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새로운 입국 코드를 부여하고 이들의 경우는 노동허가증이 없이도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이민국은 L과 E비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없이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는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I-9 서류 작성 시에 증거 서류로 노동허가증 대신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2022년 1월 31일 이후에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입국 시 부여

되는 I-94 신분코드를 구체적으로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게 부여하게 되었고 이 코드를 취업 가능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이민국은 미국에서 I-539 양식을 통해서 신분을 받은 분들은 이민국에 직접 통보서를 보내고, 미국에 비자로 입국한 분들은 국경 보호처를 직접 접촉해서 입국 코드를 변경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3. 최근 가족이민 신청 시 주의 사항(한국에서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한국에서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I-130이라는 가족 이민 청원서를 먼저 접수가 승인이 난 이후 미국무부와 미대사관 영사과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 가족 초청 청원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4. 취업이민 소식

취업이민 이민국 수속은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I-140 청원서의 경우 급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거주회사들의 청원서가 접수되는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경우 평균 11.5-1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쪽 회사들의 케이스가 접수되는 텍사스 서비스센터의 경우도 평균 10.5-24.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프리미엄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경우).

2) 영주권 신청 I-485 처리도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경우 평균 10.5-19개월이 소요되고 텍사스 서비스센터의 경우도 평균 10.5-19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3)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6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치과 임플란트로의 접근

“이가 없으면 무엇으로 살지?”
“잇몸으로 살지.”

누구나 한번쯤 이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씹렁한 게 것처럼 들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치과라는 분야가 없었을 때 이 말은 당연한 상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라믹이 개발되어 치과 진료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기 전인 1970년 대에는 금속이 크라운을 만드는 주재료여서 앞니처럼 심미적인 자연스러움을 요구하는 부위에 사용하는 데 예로가 많았습니다. 당시 최대한 금속의 시커먼 색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방법으로 창문의 창틀을 응용한 크라운 제작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대 들어서 재료 공학의 발전으로 세라믹이 치과계에 소개되면서 심미치과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파절 되기 쉽다는 세라믹의 단점이 기술력으로 보완되면서 이제는 심미치과 분야뿐 아니라 기능이 강조되는 아궁니 부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미적 요구가 큰 부위에 금속 색이 드러나는 치료법은 거의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라믹이나 합성수지처럼 자연치아 색을 가까이 재현해 낼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지던 것이 역사의 뒤안에 묻히고 새로운 개발된 방법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가 없는 경우 틀니를 만들어 잇몸 위에 얹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실된 이를 대신할 잇몸이 무척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틀니를 받치던 잇몸은 반복적으로 무리를 주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무너져내려 결국 틀니를 견고하게 떠받치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결



▲ 사진:shutterstock

과로 기존 틀니가 제대로 맞지 않아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고 새로운 틀니에 의해 잇몸과 턱뼈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악순환을 통해 결국 틀니조차 사용할 수 없을 단계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주변 잔존 치아가 튼튼하고 상실된 치아의 수가 몇 안 되고 주변 치아가 건강한 경우 그 치아들을 이용해서 상실된 치아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고정성 의치라고 하는데 보통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 치료법은 상실 부위 주변 치아들을 삭제하여 크라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가지를 넣어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고정성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넣었다 뺐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주변 치아가 상실된 치아들의 기능을 나눠 짊어질 만큼 튼튼하지 못하거나 상실 치아의 수가 너무 많아 잔존 치아들만으로 저작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분 틀니가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이 또한 잔존치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 1415호에서 계속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전문
Fullerton Office (714) 510-30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 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